

카타르 월드컵 현장서 전남관광 알린다

‘전남 방문의 해’ 맞아 도하 코니시 해변서 18일까지 이벤트 200만명 카타르 방문객 대상 청정·힐링 고품격 관광자원 홍보

전남도도와 전남관광재단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도하 중심부 코니시 해변에서 대한민국 지자체를 대표해 18일까지 10일간 전남 관광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남 관광 홍보 이벤트는 전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카타르한국대사관 등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월드컵 기간 중 카타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00만명의 관광객과 중동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홍보관에서 전남 관광 홍보를 위한 다

양한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홍보관에서는 전남 방문의 해 및 전남 웰니스 관광자원 홍보 영상 등을 옥외 송출하고 전남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케이(K)-드라마 전남 촬영지 등이 담긴 전남 관광 홍보 책자를 배부한다. 중동 엠지(MZ)세대와 전 세계 월드컵 팬층을 대상으로 전남 홍보관 누리소통망(SNS) 인종샷 이벤트를 통한 기념품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남을 알린다. 전남도는 지난 5월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19억 무슬림 중동 관광 시장 신규 개척을 위해 한국 지자체 대표로 중동

관광 로드쇼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동 관광객 전남 유치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여행사 등과의 협약(MOU)도 했다.

또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두바이 등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동 미디어·인플루언서 초청 팬투어를 진행하는 등 전남 관광 인지도 제고를 통한 중동 관광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관광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중동 관광객이 선호하는 전남의 풍부한 청정·힐링 천연자원과 문화자원 등 고품격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무슬림 친화 관광지 수용 태세를 구축해 중동 관광객이 여행오고 싶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투리로 노래하는 피꼬리?

전남대 국지원씨 연구...강원·충청·경상·전라 지역별 소리 차이 밝혀

피꼬리의 노랫소리가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지원씨는 전남대 이학석사학위 논문 ‘한국의 여름철새인 피꼬리 노랫소리의 지리적 변이’를 통해 ‘피꼬리는 사는 곳에 따라 노래도 다르게 부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피꼬리의 음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국씨의 설명이다.

이 연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5개 지역(강원도 영서, 강원도 영동,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피꼬리 46마리

가 부른 1475개의 노랫소리를 마이크로 녹음하면서 진행했다. 피꼬리 노랫소리는 보통 짹짹기와 세력 방어 등의 역할을 하며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알려졌다.

국씨는 “특정 지역에서는 피꼬리가 ‘휘! 휘!’ 하면서 노래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휘익~ 휘익~’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면서 “전국의 100여 곳이 넘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꼬리 음성을 마이크로 수집했다”고 말했다.

전라도에 사는 피꼬리와 경상도에 사는 피꼬리의 노랫소리의 차이가 인간의 사투리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논문에는 5개 지역 39마리의 피꼬리로부터 얻은 385개의 노랫소리를 음절(syllable)단위로 분석해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국씨는 논문에서 피꼬리의 노랫소리는 지리적 요인 외에도 서식지 특성 등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텃새가 아닌 철새인 피꼬리의 특성상, 전라도에 서식하던 피꼬리가 다음해에도 전라도로 오는지 추적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국씨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명한 피꼬리 음성 연구가 거의 없어 도전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피꼬리 소리를 찾으러 다니느라 힘들었지만, 지역별 피꼬리 음성 차이를 밝혀내 뿌듯하다”면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연구에 더 매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국제자동차경주장 동계시즌 ‘질주’

선수·동호회·일반인 이용가능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도가 겨울철 동안 선수와 일반인이 자동차 경주장을 주행하는 ‘국제자동차경주장 동계시즌’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 신청을 접수한다. 동계시즌은 2023년 3월 19일까지 총 12차 58일간 운영된다. 매주 수, 목요일은 F1코스를 주행하는 선수와 동호회 주행을 위한 단체입대가 진행된다. 금요일과 주말은 일반인 등 서킷라이선스를 소지한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1주권’과 ‘1일권’으로 구분 판매된다.

경주장은 자동차 정비공간(피트)이 분리돼 있고 참가인원 간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간 참가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연인원 2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참가자의 90% 이상이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경주장을 방문하고 있어 비수기를 맞은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동계 훈련을 위해 2013년



전남도가 모터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2023년 3월 19일까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F1 코스를 선수, 동호회, 서킷라이선스를 소지한 일반인에게 공개입대한다. 사진은 F1 코스를 질주하는 경주차량들.

부터 동계시즌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50여 일간 연인원 2000여명이 경주장을 방문하는 등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올해도 이용 못해

광주시, 코로나19 이후 3년째 중단... ‘운영비 부담’에 가장 어려워 시민들, 활동량 적은 겨울시즌 ‘1000원의 즐거움’ 사라져 아쉬움

민선 8기 들어 ‘꿀잼 도시’를 선언한 광주시가 겨울철 시민 나들이 명소 사랑받던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다.

고물가 등으로 가족이나 야외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아이들의 활동량이 떨어지는 겨울 방학 기간 단돈 1000원으로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대전시 등 타 지자체는 이번 주부터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하기로 하는 등 광주시와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헬멧 대여료를 포함해 시간당 1000원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은 50%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특히 매주 특정 시간대에 장애인스케이트 체험교실 등 야외활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까지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하루 평균 이용객만 1000명을 넘어섰다.

2017~2018년 겨울 47일간 6만7017명(하루평균 이용객 1426명), 2018~2019년 48일간 5만3180명(1108명), 2019~2020년 53일간 5만8937명(1112명)이 이용했다.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자녀를 둔 김민수(48·광주시 북구)씨는 “코로나19 발생 전 단돈 1만원으로, 시청 야외광장에서 아이들과 간식까지 먹으면서 스케이트를 탔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아쉬워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3년 겨울부터 시청 야외광장에 설치·운영했던 야외 스케이트장(1800㎡, 60×30m)을 올해 개장하지 않기로 했다.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지난 2020년 겨울부터 2년 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야외 행사는 물론 프로야구를 비롯한 실내의 스포츠 관람마저 가능해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에 제약이 없어도,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6억 5000만원 규모의 운영비 마련이 버겁다며 미개장을 결정했다.

광주는 겨울철이면 염주 실내 빙상장을 제외하고는 스키장이나 변변한 빙상 시설이 없는 탓에 저렴한 이용료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이용요금은 스케이트장 입장료와 스케이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그동안 수십억 원 예산이 소모된 야외 스케이트장보다 더 나은 시청 야외 광장 활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와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스케이트장 운영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와 달리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52일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개장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대전시도 16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엑스포 시민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경남 진주시 등은 올해 처음으로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過而不改)’

교수신문, ‘잘못 드러나도 남탓하고 고칠 생각 안해’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등장하며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是謂過矣)’(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 과이불개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나온다.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이 실록

에 적혀있다.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에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건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의 반성과 대책 때문에) 세종 재위 기간 안전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 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진노해야 하나”고 말했다. /연합뉴스

싼,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9582-7400

급매물건 삽니다
경매직전 물건 (주)오천.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급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채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정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1935호

광주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1-212호선)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광주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1-212호선) 결정(변경)안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29.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 내용
가.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170-40번지 일원
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 조서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비고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소로 1-212	소로 1-212	소로 1-212	소로 1-212	소로 1-212	소로 1-212	소로 1-212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1-212	소로 1-212	도로 연장 및 직적행방 변경 - L = 794m → 892m - B = 10 → 12m	도로 시설물이 계획된 잔여지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추가 편입 연행도로로 사용 중인 구간에 대하여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연장 결정하여 폐색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라. 주민의견청취기간: 2022. 11. 29. ~ 2022. 12. 14.(15일간)
마.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바. 관련도서: 계획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방법 등
-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열람 후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62-360-7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행안내
12월 18일(일)
▲광주한길산악회
12월 18일(일) 부산-금정

산 송년산행(범어사, 광안대교 송년회) 오전 06시
50분 비엔날레주차장 건너편 출발 ☎ 010 3635 1707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당 회사는 2022년 11월 29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인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의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주식회사 모노하우징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95번길 9-2, 202호 (양산동)
청산인 노연금

70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인재 •
북구: 동광 266-1920, 문 266-1960, 특광 525-3761, 신 222-8171, 양산 571-7658, 오 266-7801, 용봉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3-6836, 동명 222-0054, 동부 225-6001, 중흥 222-0054, 충장 222-8171
남구: 남부 673-6836, 백 651-1833, 동신 673-6836, 순 675-68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 372-2352, 서광 369-1625, 문 376-7153, 치평 376-6511, 문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남 952-1687, 월 959-1920, 청 973-2900, 하 955-0451, 광 944-0444